"정보통신으로 IMF체제 극복에 선도역할을"

친애하는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

1998년 무인년 새해가 밝아졌습니다. 올해는 범띠의 해이기 때문에 범처럼 용기있게 많은 변화와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의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국내적으로는 정권교체에 따른 정부기능의 재정립이 추진될 것이며, 우리가 당면한 경제적 시련을 극복하기 위하여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밖으로는 '정보화'라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불과 2년뒤면 정보화시대라 일컫는 서기 2000년이 시작됩니다. 이는 인류역사의 새로운 틀을 마련했던 산업혁명에 비교되는 새로운 역사의 물결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헤치고 새로운 세기에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중심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사적 소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적으로 IMF의 자금지원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개방과 국제경쟁은 이제 우리앞에 다가온 현실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개방과 거센 흐름속에서 구조조정의 터널을 어떻게 슬기롭게 빠져나가야 할 것인가가 정부는 물론 모든 정보통신업계의 주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통해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이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튼튼히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분야야말로 국가사회 각 부문에 걸친 저효율의 낡은 구조를 깨뜨리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을 바탕으로 올 한해 우리는 정보통신정책의 방향을 정보화를 통한 구조개혁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두고 다음 몇가지를 정책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통해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IMF환경하의 구조조정을 빨리 마무리짓고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보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국가사회 각 분야에 정보화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능률적인 조직과 보다 적은 인력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경영혁신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와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혁신을 이루고, 기업을 비롯한 각 민간부문에서도 정보화를 통해 경영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보화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할것입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해 물류와 인력등의 고비용구조를 해소해 나가도록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모든 유무선통신망을 상호 연동하는 '열린 정보통신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정보통신산업 육성기반을 확충하고 소프트웨어산업과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를 선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정보통신전문인력 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정보통신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해 나갈것입니다.

정보통신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산업과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소 정보통신 벤처기업에 대해 자금과 인력은 물론, 기술과 판로를 지원하는 한편 각종제도를 이들의 특성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정보통신분야의 행정을 선진화하고 효율화하여 정부전체의 기능조정에 능동적으로 앞서가는 부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행정의 효율성 제고작업에 우리가 앞장서서 민간의 창의와 기업의욕을 고취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통신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통신이용 편익을 높이고, 정보통신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보통신시책도 보다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넷째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와 방송 컨텐트 산업을 활성화하여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파자원의 이용기술과 지상파 디지털 방송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고, 위성방송을 활성화하여 관련 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키고 우편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우정사업에 민간경영기법을 과감히 도입하여 경영성과주의가 정착되도록 하고, 비투자 우체국과 민간유치 우체국의 건립을 통해 정부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편사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주요도시에 우편집중국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우편전산망을 고도화하며, 전자우편 등 새로운 우편서비스의 개발·보급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체국에 맡기면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도록 우편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체신금융서비스도 민간은행들의 경쟁체제 도입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분야의 국제협력활동을 강화하여 우리 정보통신업체가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할것입니다. 먼저 정보통신업체의 해외진출을 위해 주요 대상국에 민관합동 시장개척단과 정보통신 주재관의 파견을 촉진하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통신인력 초청훈련과 기술지원을 강화하며 해외진출 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해외진출지원협의회의 운영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

이와같은 우리부의 올해 주요 정책목표를 밝히면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새로운 국제경쟁의 험난한 파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회와 위기는 같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새로운 도약을 향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솔선하여 인력과 예산절감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조직상의 비능률적인 요소와 고비용구조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을 늘리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무역역조를 타개하는데 정보통신분야가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야 말로 새로운 세기를 열어갈 변화의 주체입니다. 안일과 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에 정면으로 맞서는 도전적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21세가 정보화시대를 만들어가는 역사적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내느냐에 못해느냐에 따라 21세기 우리나라의 장래가 판가름 날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촉진시켜 우리나라가 21세기 정보통신 중심국가로 우뚝 세우겠다는 강한 신념과 묵묵한 실천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소명의식을 재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월 3일

정보통신부장관 강 봉 균